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89호 발행일 : 2004년 7월 4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주일 행사를 은혜 중에 가져



지난 주일은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주일로 지켰다. 교회를 창립한 이재철 목사의 1-3부 설교와 3부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이 있었다. 이재철 목사는 행 13:1-3을 통해 “캐톨릭 교회”(Catholic Church)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와 자유함 안에서 자기 안에 간혀 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풀어놓아줄 때 그러한 교회를 능력 있게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우리 안에 갇힌 편견들로부터 자유해질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능력 있게 주님의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3부 때는 장로 10명, 집사 14명,

권사 11명이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았다. 3부 예배 후에는 교회 로비에서 교회 창립 16주년을 축하하는 케익 절단식도 있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임직식이 이루어져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우리교회는 장로 10명, 집사 14명, 권사 11명의 임직식이 있었다. 이재철 목사의 설교 후에 문동학 목사는 장로와 집사, 권사에 대한 임직 서약을 받고 목사와 장로들이 안수하여 피택자

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임직식을 행했다. 임직식 이후에는 김도묵 장로의 권면의 말도 있었다. 교회가 선거와 기도로 뽑은 일꾼이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교회가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늘 장로 5인과 집사 10인, 권사 10인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갖는다. 만 18세 이상인 세례, 입교 교인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제3회 한국 국제 아트 페어 행사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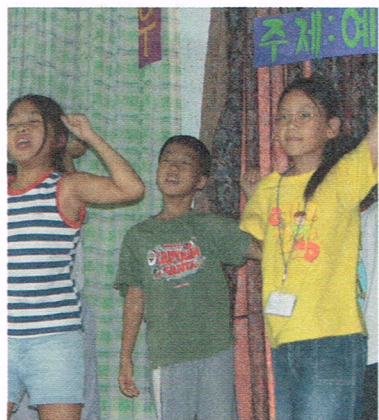
박호길 장로는 의사의 본업 이외에 갤러리(Dr. Park)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회 한국 국제 아트 페어 행사가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6월 22일~27일까지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국 14개국에, 국내 83개 화랑, 국외 42개 화랑이 참



가하는 국제 행사였다. 박호길 장로는 본인이 평소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전시했다.

온 세상을 품는 아이로 세우라!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양평관 광농원에서 7월29(목)-31(토)에 갖는다. 초등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 확실히 믿기에 지난겨울 수련회에 이어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이어지는 주제로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섬긴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열린 예배와 성서학습 레크레이션 기도회 캠프파이어 선교 센타 (외국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태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란 생각으로 초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여름 수련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여름 성경학교 유아·유치부 함께 마련해



올해 유아부와 유치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한다. 주제는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 주제 성구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야 49:6)이다. 날짜는 8. 14(토)-15(주)

일)일 이틀간 교회에서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부모 교육은 8. 15(주일) 오후 1시-3시, 소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성경학교는 이렇게 진행된다.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말씀과 다양한 영역의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

럽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들이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수님의 쉼을 배우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

중등부는 7월 25(주일)~27일(화), 강원도 화천 광덕그린농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난다. 이번 수련회 중등부 주제는 “예수님의 쉼을 배우자”(마태복음 11:28-30)이다. 중등부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 방황하며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년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중등부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비전과 꿈을 잊고 산다. 예수님의 쉼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다.

휴식은 쉼 그 자체이고, 안식은 쉼 다음을 생각하는 목적이 있는 쉼이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중등부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강원도 자연 속에서 예수님의 쉼을 배우며 그 동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잊고 살았던 아이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심어주는 뜻 깊은 수련회가 될 것이다.

2004년 임직자 선거 공고

주님의교회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인들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 및 기준

- ◆ **공동의회** : 2004년 7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개회
- ◆ **투표장소** : 정신여중고 본관 1층
- ◆ **피택인원** : 장로 5인, 집사 10인, 권사 10인
- ◆ **피택기준** : 장로 - 투표자의 2/3이상 득표
집사, 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 ◆ **후보자선정**
 - ① 1차투표시 : 당회공천자
 - ② 2차투표시 : 1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 투표과정

- ① 1차투표 : 7월 4일(주일) 오전 8:30~오후 1:30
- ② 1차투표결과발표 : 7월 7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③ 2차투표 : 7월 11일(주일) 오전 8:30 ~ 오후 1:30
- ④ 2차투표결과발표 : 7월 14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특기사항

1차투표 결과 피택인원에 미달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2차투표시 각 후보자는 부족수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2차투표로 선거를 마감합니다.

2004년 6월27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장로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김 성 구

- 52년생 / 90년 등록
- 경리부장
- 재정부장



김 양 자

- 44년생 / 91년 등록
- 호스피스부장
- 주방부



김 우 림

- 47년생 / 95년 등록
- 3부찬양대
- 재정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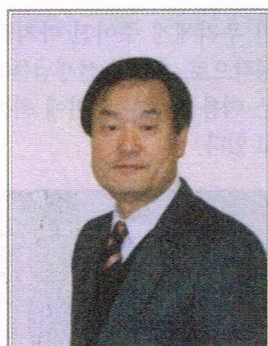
박 중 규

- 48년생 / 89년 등록
- 계수부장
- 새가족사역팀



유 중 화

- 53년생 / 90년 등록
- 예배부장
- 2부찬양대장



이 성 우A

- 46년생 / 88년 등록
- 안내부장 (2001년도)
- 장학부장



최 상 인

- 57년생 / 90년 등록
- 청년2부장
- 함즐함울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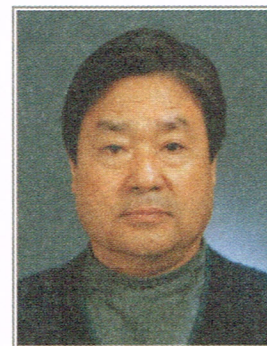
하 승 락

- 49년생 / 89년 등록
- 해외선교부
- 경조부장



한 득 현

- 46년생 / 92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소년부장



한 정 웅

- 44년생 / 90년 등록
- 119사역팀장
- 안내부장

집사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김 구 중

- 52년생 / 91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김 기 성

- 46년생 / 95년 등록
- 봉사부
- 구역장



김 기 용

- 46년생 / 91년 등록
- 차량부
- 차량부



김 동 근A

- 52년생 / 94년 등록
- 강남병원선교팀
- 2부찬양대



김 흥 용

- 47년생 / 93년 등록
- 홍보출판부장
- 안내부



동 현 수

- 56년생 / 95년 등록
- 청년1부장
- 고등부장



박 대 길

- 51년생 / 96년 등록
- 중등부장
- 해외선교부



서 준 규

- 52년생 / 96년 등록
- 의료선교부장
- 2부찬양대



성 하 홍

- 51년생 / 95년 등록
- 구역장
- 봉사부



심 동 욱

- 52년생 / 92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유 중 열

- 58년생 / 98년 등록
- 구역장
- 방송부



윤 성 진

- 58년생 / 90년 등록
- 구역장
- 소년부장



이 동 희A

- 57년생 / 93년 등록
- 수요찬양팀장
- 도시선교부



이 상 윤A

- 52년생 / 94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이 용 수

- 59년생 / 90년 등록
- 유소년축구클럽
- 구역장



이 원 철

- 52년생 / 89년 등록
- 주방부
- 예배부



이 진 원

- 53년생 / 92년 등록
- 외국인선교부장
- 구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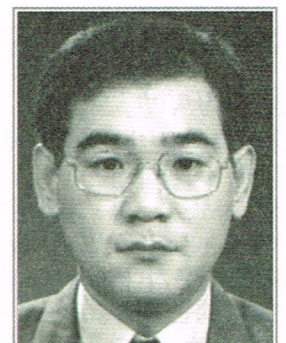
조 명 국

- 67년생 / 89년 등록
- 도서부
- 장애인부



조 영 룰

- 55년생 / 93년 등록
- 예배부
- 차량부



최 성 진

- 56년생 / 99년 등록
- 구역장
- 2부찬양대

세계를 품는 아이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8월 15일(주일)부터 17일(화)까지 안성에 있는 엄마목장(너리골 문화마을)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재미있는 성경말씀을 다양한 놀이와 집단 활동을 통해 몸소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름성경학교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 7월은 ‘미리 가보는 성경학교’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진다.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에는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가족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8월은 여름성경학교 이후의 배움과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어느 해 보다 뜨겁고 푸르를 2004년의 여름! 유년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맘과 성장의 계절을 누리길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련회의 성공은 교사들의 손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모들의 기도과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이들은 교사와 부모의 사랑을 동시에 먹고자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들 지라도 함께 모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고등부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적은 인원엔 큰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에도 예배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3박 4일이라고 하는 여름수련회 기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마음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이 빠지게 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의 요구 앞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부담이 다른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이 마음을 한 집사님과 나눴더니 집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얼마만큼의 수가 아니라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원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회개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에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더 간절해졌다. 6월 17일 강원도 아로마 허브

농장으로 결정된 수련회 장소를 다시금 둘러보러갔다. 주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피곤했지만 이곳저곳 둘러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교사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서로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도시선교부

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시 선교부에서는 그동안 기 지원중인 교회와 신규 지원대상 교회를 발굴, 탐방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기 지원 교회

는 도움이 더 필요한지 또는 자립에 진전이 있는지 향후 자립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신규 지원대상 교회는 지원의 필요유무, 지원 후 자립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탐방했다. 현 운영현황(교인수, 시설, 헌금 등)을 확인하여 전년도 현황과 비교, 추가지원 필요사항 유무, 자립가능 여부 등도 판단했다. 주님의 교회(파주)는 4월 9일, 광성교회(이천) 5월 8일 탐방했다. 신규 지원대상 교회도 현황 파악 지원여부 판단하여 부평교회(인

제) 3월 13일, 성지교회(죽전) 5월 22일, 살롬의 집(구리 장애인 시설) 5월 29일 탐방 완료해 신규 지원키로 결정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알린다. 먼저 소망의 집(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무의탁 노인의 집)은 6월 26일 탐방한다. 기 지원교회 탐방 예정으로는 충남 서천교회가 있다. 지원을 요청한 현동(마산)교회, 한마음교회, 동지교회(부산)에도 탐방할 예정이다. 주님의 교회 출신 목사가 담당하는 개척교회 근황 파악 및 필요시 지원 검토한다. 또 앞으로 기 지원교회에 대한 지원 개시일 확인이 남아 있다.

❖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 서	일 정	장 소
영아부	8월 15일	주님의교회
유아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치부	8월 14~15일	주님의교회
유년부	8월 15~17일	경기도 안성 엄마 농장
초등부	7월 29~31일	경기동 양평 관광 농원
소년부	7월 22~24일	경기도 중부 수련원
중등부	7월 25~27일	강원도 화천 광덕 그린 농원
고등부	8월 1~4일	강원도 홍천 허브 농장
썩트네	8월 22일	주님의교회

(5면에 이어서)

만날수록 구체화되는 비전

네트워킹도 사역이다

4차 모임에서는 윤은성 목사의 발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청소년사역은 1. 가정, 학교, 교회, 사회 등 4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고, 2. 지도자 양성, 의식의 개혁,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3.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소년사역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을 함으로써 모델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의 사역들을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코엑스몰과 같이 교회에 인접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사역 등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동심원을 넓히자

5차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과제가 1.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비전의 폭을 넓히고 구체화하고, 2. 명실상부한 주님의교회 비전팀이 될 수 있도록 교회내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대표성을 확립해가고, 3. 교인들에게 비전팀의 활동을 설명하고, 논의의 동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세계화시대 지도자를 양성하라

홍사단의 장동현, 한만길 박사를 초청하여 가진 6차 모임에서는 ‘세계화시대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홍사단과 ‘차세대 영향력있는 크리스천 (전문) 지도자’를 키워내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상통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홍사단의 설립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신학원을 주목하자

7차 모임에서는 이종은 권사가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함께 나누었는데,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신학원의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할지 논의하였다.

4대 사역을 정리하다

비전팀은 5월 24-25일 양일에 걸쳐 엠티를 가지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주님의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청소년사역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1. 네트워킹 구축사역,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3. 교회학교 청소년사역의 모델 제시, 4. 문화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이다.